고1 공통국어1 창비

2027 고1 공통국어1 창비 | 2(1) 음운 변동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음운 변동」 단원에서는 개별 음운 변동의 개념과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등 핵심적인 음운 변동 현상이 특정 단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이 기본 유형입니다. 따라서 각 음운 변동의 조건과 결과를 명확히 암기하고, 대표적인 예시 단어들을 통해 규칙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 두어야 합니다.

1. 한국어의 음운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밀’과 ‘문’은 최소 대립쌍으로, 두 단어를 비교하면 음운을 찾아낼 수 있다.
② ‘ㅎ’은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에 해당한다.
③ ‘실’과 ‘일’의 ‘ㅅ’과 ‘ㅇ’은 의미를 변별하게 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므로 모두 음운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ㄱ’은 발음 기관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고 ‘ㅏ’는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는 소리에 해당한다.
⑤ 입술을 둥글게 하여 내는 소리인 ‘ㅜ’는 ‘ㅚ’보다 혀의 위치를 높게 두고 혀의 최고점을 뒤쪽에 고정한 채 발음하는 소리에 해당한다.

2. <보기>의 ㉠~㉤의 밑줄 친 말과 동일한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음운 변동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등이 있다.

㉠ 우리는 많은 꽃[꼳] 속을 걸었다.
㉡ 잠깐 사이에 국물[궁물]이 넘쳐흘렀다.
㉢ 칼날[칼랄]이 날카로워도 제 자루 못 깎는다.
㉣ 나는 바닷가에서 해돋이[해도지]를 기다렸다.
㉤ 우리는 국밥[국빱]을 먹었다.

① ㉠: 부엌, 앞뜰
② ㉡: 독립, 속는다
③ ㉢: 난로, 불나방
④ ㉣: 붙이다, 굳히다
⑤ ㉤: 김밥, 무밥

3. 다음 중 발음할 때, <보기>에 제시된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고르면?

<보기>

음절의 끝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의 자음만 발음되고,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① 벚꽃
② 히읗
③ 헛웃음
④ 밖에
⑤ 앞날

무단배포금지

4. <보기>에서 최소대립쌍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보기>

ㄱ. 다리 : 허리　　ㄴ. 서리 : 허리
ㄷ. 둘 : 불 : 풀　　ㄹ. 오리 : 수리
ㅁ. 쌀 : 살　　ㅂ. 안 : 악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ㄷ, ㅁ, ㅂ
④ ㄴ, ㄷ, ㅁ, ㅂ
⑤ ㄴ, ㄹ, ㅁ, ㅂ

5. 다음 중 표준 발음과 발음할 때 적용된 음운 변동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광한루: [광할누] – 유음화
② 낙화암: [나콰암] – 된소리되기
③ 집현전: [집편전] – 거센소리되기
④ 을숙도: [을쑥또] – 된소리되기
⑤ 죽녹원: [중녹원] – 비음화

신유형

하나의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 외에도, 하나의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순서대로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기>에 제시된 음운론적 개념(조음 위치, 조음 방법, 음절 구조 등)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 전후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게 하거나, 여러 단어를 묶어 공통적으로 적용된 규칙의 횟수나 유형을 파악하게 하는 등 통합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규칙 암기를 넘어, 여러 현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고 <보기>의 정보를 새로운 예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6.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파찰음			ㅈ ㅉ ㅊ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국어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위 표를 바탕으로 [자료]의 자음 교체 양상을 알아보자.

[자료]
ⓐ 물난리[물랄리]
ⓑ 옷맵시[온맵씨]
ⓒ 있었다[이썯따]
ⓓ 겉옷만[거돈만]
ⓔ 낱낱이[난나치]

① ⓐ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② ⓑ에는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③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한다.
④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⑤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만 변하고 조음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

무단 배포 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7. <보기>를 고려하여 한국어의 모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습 자료]

반모음은 홀로 발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 또는 삼중 모음과 같은 복합적인 모음의 일부로 쓰인다. 국어의 반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모음 'ㅣ'와 성격이 비슷한 'j'이고 다른 하나는 단모음 'ㅗ, ㅜ'와 성격이 비슷한 'w' 이다. 반모음 'j'가 포함된 이중 모음에는 'ㅑ, ㅕ, ㅛ, ㅠ, ㅐ, ㅔ' 등이 있으며, 반모음 'w'가 포함된 이중 모음에는 'ㅘ, ㅝ, ㅙ, ㅞ' 등이 있다. 'ㅑ, ㅕ, ㅛ, ㅠ, ㅐ, ㅔ'는 반모음 'j' 뒤에 단모음 'ㅏ, ㅓ, ㅗ, ㅜ, ㅏ, ㅔ'가 결합되어 있고, 'ㅘ, ㅝ, ㅙ, ㅞ'는 반모음 'w' 뒤에 단모음 'ㅏ, ㅓ, ㅐ, ㅔ'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어의 이중 모음은 대부분 반모음 'j'와 'w'가 다른 단모음 앞에 결합하는 구조를 가진다.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자음보다는 모음에 좀 더 가깝다. '반자음' 대신 '반모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그래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인접할 때 단모음 중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자주 나타난다. 가령 어간 '보-'와 '계시-' 뒤에 어미 '-어야'가 결합할 때 그 활용형이 '봐야'와 '계셔야'로 나타나는 것은 각각 단모음 'ㅗ'와 'ㅣ'가 반모음 'w'와 'j'로 바뀐 결과이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으므로 음절의 수는 줄어들게 되나, 음운의 수는 변화가 없다.

① 이중 모음은 두 개의 음운이 결합되어 있군.
②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 항상 음절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군.
③ 반모음은 홀로 발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자음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겠군.
④ '내'와 'ㅔ'를 비교하면 반모음은 다르지만 단모음은 같은 이중 모음이로군.
⑤ 어간 '그리-' 뒤에 어미 '-어서'가 결합하여 활용형이 '그려서'로 나타날 때, 음운의 수는 변화가 없으므로 교체에 해당하겠군.

8.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
•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ㅁ, ㄴ'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현상
• 유음화: 'ㄴ'이 유음인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 된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되는 현상

① '숲속'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법칙과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② '속물'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나타난다.
③ '담고'에서는 비음화와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④ '뱃머리'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나타난다.
⑤ '웃어른'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유음화가 나타난다.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9. <보기>의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국어의 음운 변동의 유형을 교체, 첨가, 탈락, 축약으로 구분해 보았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발음할 때 여러 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음운 변동이 몇 번 일어난 단어들끼리 묶여 있는지 파악하고, 일어난 음운 변동의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자료]

㉠ 민락역[밀랑녁], 설익다[설릭따]
㉡ 몫몫이[몽목씨], 훑거나[훌꺼나]
㉢ 낱낱이[난:나치], 햇볕이[핻뼈치]
㉣ 숱하다[수타다], 닫히다[다치다]
㉤ 밤낮없이[밤나덥씨], 저녁연기[저녕년기]

	묶음	단어별 음운 변동이 일어난 횟수	일어난 음운 변동의 유형
①	㉠	3회	교체, 첨가
②	㉡	2회	교체, 탈락
③	㉢	2회	교체
④	㉣	1회	축약
⑤	㉤	2회	교체, 첨가

10. <보기>의 ㉠~㉤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그 누가 그대에게 한 발자국 ㉠남짓한 자리를 마음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 마치 철창 속에 ㉡갇힌 원숭이처럼 ㉢답답하게 하였습니까?

• 그대는 어찌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대가 이 그늘로 들어갔을 적에 과연 조용하고 ㉤넉넉하게 노닐며 태연하게 스스로 얻은 것이었습니까?

① ㉠에서는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 종류의 제한으로 인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② ㉡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과 조음 위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났군.
③ ㉢에서는 첨가된 자음으로 인해 조음 방법이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④ ㉣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과 조음 방법이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났군.
⑤ ㉤에서는 인접한 자음끼리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11. <보기>는 음절 구조의 유형 및 음절 구조의 변동에 관한 학습 활동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국어의 음절은 크게 네 가지 구조로 실현된다.

a. 모음
b. 자음+모음
c. 모음+자음
d. 자음+모음+자음

그런데 어떤 단어에서 연음이 일어나면 앞 음절과 뒤 음절의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도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다음 단어들을 연음이나 음운 변동에 의해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있는 말로 나누어 보자.

㉠ 웃다 ㉡ 잡목 ㉢ 맏형
㉣ 솜이불 ㉤ 끓으니 ㉥ 을숙도

•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있는 말: (A)
•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없는 말: (B)

	A	B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1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와 같은 활동을 하였다. 활동 결과가 옳지 않은 학생은?

<보기1>

음운 변동 현상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으로 나뉜다. ㉠교체는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키며, ㉡탈락은 특정한 음운이 주변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첨가는 본래 없던 음운이 덧붙는 현상을 가리키며, ㉣축약은 두 음운이 합해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킨다.

<보기2>

선생님: 음운 변동은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각자 한 가지 단어를 골라 음운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해 봅시다.

갑: '낱낱이'가 [난나치]로 발음되는 이유는 ㉠이 두 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을: '읽히고'가 [일키고]로 발음되는 이유는 ㉣이 한 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병: '없다'가 [업따]로 발음되는 이유는 ㉠이 한 번, ㉡이 한 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정: '덧입다'가 [던닙따]로 발음되는 이유는 ㉠이 세 번, ㉢이 한 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무: '부엌일'이 [부엉닐]로 발음되는 이유는 ㉠이 두 번, ㉢이 한 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3. <보기>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읊- + -는 → 읊는[음는]
㉡ 첫 + 사랑 → 첫사랑[천싸랑]
㉢ 긁- + -고 → 긁고[글꼬]

① ㉠과 ㉡은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② ㉠과 ㉢은 예사소리가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③ ㉠~㉢ 모두, 받침에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확인할 수 있군.
④ ㉠~㉢ 모두,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한 자음이 다른 자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⑤ ㉠~㉢ 모두, 음절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둘 중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여 발생하는 음운 변동을 확인할 수 있군.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국어사전의 표제어와 활용 정보 -

㉠ 계시다
→ 활용형: 계시어(계셔)[계:시어(계:셔)], 계시니[계:시니]
㉡ 잠그다
→ 활용형: 잠가[잠가], 잠그니[잠그니]
㉢ 갈다
→ 활용형: 갈아[가라], 가니[가:니]
㉣ 타다
→ 활용형: 타[타], 타니[타니]
㉤ 닳다
→ 활용형: 닳아[다라], 닳으니[다르니], 닳는[달른]

① ㉠: '계시다'의 어간 '계시-'에 어미 '-어'를 붙여 발음할 때 반모음화 현상이 일어날 경우, 이를 표기에 반영한다.
② ㉡: '잠그다'의 어간 '잠그-'에 어미 '-아'가 붙을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달리 어간에서 'ㅡ'를 탈락하여 발음하고 이를 표기에 반영한다.
③ ㉢: '갈다'의 어간 '갈-'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경우, 어미 '-아'가 붙을 경우와 달리 어간에서 'ㄹ'을 탈락하여 발음하고 이를 표기에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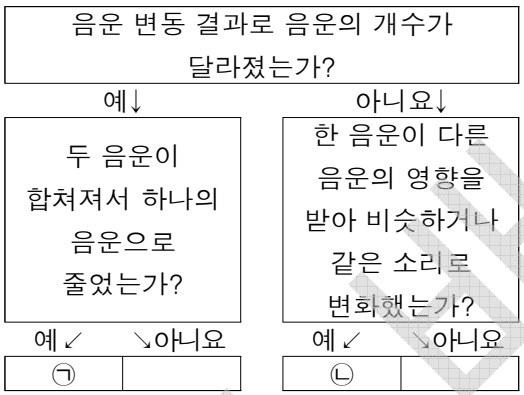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④ ㉣: '타다'의 어간 '타-'에 어미 '-아'가 붙을 경우, 동일한 모음 가운데 하나를 탈락하여 발음하고 이를 표기에 반영한다.

⑤ ㉤: '닳다'의 어간 '닳-'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달리 어간에서 'ㅎ'을 탈락하여 발음하고 이를 표기에 반영한다.

15. <보기>의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① ㉠의 예로 '곱하기'를 [고파기]로 발음하는 것을, ㉡의 예로 '꽃망울'을 [꼰망울]로 발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② ㉠의 예로 '맏형'을 [마텽]으로 발음하는 것을, ㉡의 예로 '닭장'을 [닥짱]으로 발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③ ㉠의 예로 '쌓이다'를 [싸이다]로 발음하는 것을, ㉡의 예로 '천리'를 [철리]로 발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④ ㉠의 예로 '피어서'를 [펴서]로 발음하는 것을, ㉡의 예로 '발달(發達)'을 [발딸]로 발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⑤ ㉠의 예로 '보아라'를 [봐라]로 발음하는 것을, ㉡의 예로 '맨입'을 [맨닙]으로 발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무단배포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ㅜ'는 후설·고모음·원순 모음이고, 'ㅚ'는 전설·중모음·원순 모음이다. 따라서 입술을 둥글게 하는 점(원순)은 같지만, 'ㅜ'는 'ㅚ'보다 혀의 위치가 높고(고모음>중모음),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다(후설>전설)는 설명은 옳다.

① '밀'과 '문'은 모음 'ㅣ/ㅜ'와 종성 'ㄹ/ㄴ' 두 개의 음운이 다르므로, 하나의 음운만 달라 뜻이 구별되는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② 'ㅎ'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켜 내는 마찰음에 해당한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는 파열음 또는 파찰음이다.

③ 단어 첫소리의 'ㅇ'은 음가가 없는 기호이므로 음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은 'ㅅ, ㅣ, ㄹ' 3개의 음운으로, '일'은 'ㅣ, ㄹ' 2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④ 자음 'ㄱ'은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으며 나는 소리이고, 모음 'ㅏ'는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었다.

2. 정답 ⑤

㉤ 국밥[국빱]은 앞 음절의 받침 'ㄱ' 뒤에서 예사소리 'ㅂ'이 된소리 'ㅃ'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김밥'은 [김밥], [김ː빱]으로 발음되지만 '무밥'은 [무밥]으로 발음된다.

① ㉠ 꽃[꼳]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 '부엌'[부억], '앞뜰'[압뜰]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예이다.

② ㉡ 국물[궁물]은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독립'[동닙], '속는다'[송는다]도 비음화가 적용된 예이다.

③ ㉢ 칼날[칼랄]은 유음화가 적용되었다. '난로'[날로], '불나방'[불라방]도 유음화가 적용된 예이다.

④ ㉣ 해돋이[해도지]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었다. '붙이다'[부치다], '굳히다'[구치다]도 구개음화가 적용된 예이다.

3. 정답 ④

'밖에'는 앞 음절의 받침 'ㄲ'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에'를 만나 그대로 연음되어 [바께]로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벚꽃: [번꼳]으로 발음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② 히읗: [히읃]으로 발음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③ 헛웃음: [헏우슴] → [허두슴]으로 발음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⑤ 앞날: [압날] → [암날]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

4. 정답 ④

ㄴ. 서리 : 허리 (ㅅ/ㅎ), ㄷ. 둘 : 불 : 풀 (ㄷ/ㅂ/ㅍ), ㅁ. 쌀 : 살 (ㅆ/ㅅ), ㅂ. 안 : 악 (ㄴ/ㄱ)은 모두 한 개의 음운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므로 최소대립쌍이다.

ㄱ. 다리 : 허리 (ㄷ/ㅎ, ㅏ/ㅓ), ㄹ. 오리 : 수리 (ㅇ/ㅅ, ㅗ/ㅜ)는 각각 두 개의 음운이 다르므로 최소대립쌍이 아니다.

5. 정답 ④

을숙도: [을쑥또]로 발음되며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었다.

① 광한루: [광ː할루]로 발음되며 유음화가 적용되었다.

② 낙화암: [나콰암]으로 발음되며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었다.

③ 집현전: [지편전]으로 발음되며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었다.

⑤ 죽녹원: [중노권]으로 발음되며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6. 정답 ②

ⓑ 옷맵시[온맵씨]는 '옷[옫]'(음절의 끝소리 규칙) → '온'(비음화)의 과정을 거친다. 'ㅅ'이 최종적으로 'ㄴ'으로 교체되는데, 'ㅅ'과 'ㄴ'은 모두 잇몸소리(치조음)이므로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ㅅ'은 마찰음, 'ㄴ'은 비음이므로 조음 방법은 변한다.

무단 배포 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① ⓐ 물난리[물랄리]는 유음화가 일어나 'ㄴ'이 'ㄹ'로 교체된다. 'ㄴ'(비음)과 'ㄹ'(유음)은 모두 잇몸소리(치조음)이므로 조음 위치는 같고 조음 방법만 변한다.
③ ⓒ 있었다[이썯따]는 'ㅆ'이 대표음 'ㄷ'으로 교체된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ㅆ'(마찰음)과 'ㄷ'(파열음)은 모두 잇몸소리(치조음)이므로 조음 위치는 같고 조음 방법만 변한다.
④ ⓓ 겉옷만[거돈만]은 'ㅌ'이 대표음 'ㄷ'을 거쳐 'ㄴ'으로 교체된다. 'ㅌ'과 'ㄴ'은 모두 잇몸소리(치조음)이므로 조음 위치는 같고, 'ㅌ'(파열음)과 'ㄴ'(비음)은 조음 방법이 다르다.
⑤ ⓔ 낱낱이[난나치]는 'ㅌ'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와 'ㅌ'이 'ㅣ'모음 앞에서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비음화는 조음 방법만 바뀌지만, 구개음화는 'ㅌ'(잇몸소리)이 'ㅊ'(센입천장소리)으로 바뀌므로 조음 위치가 변한다.

7. 정답 ④
<보기>에 따르면 '괘'는 반모음 'w'와 단모음 'ㅐ'가 결합한 것이고, 'ㅙ'는 반모음 'j'와 단모음 'ㅔ'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두 이중 모음은 반모음도 다르고 결합한 단모음도 다르다.
① <보기>에서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므로, 두 개의 음운이 결합된 것이 맞다.
②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반모음화)은 '보아야'(3음절)가 '봐야'(2음절)가 되는 것처럼 음절의 수가 줄어든다.
③ <보기>에서 반모음은 홀로 발음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음의 특성과 유사하다.
⑤ '그리-'+'-어서' → '그려서'는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바뀌는 반모음화에 해당한다. <보기>에서 반모음화는 음운의 수는 변화가 없는 교체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 정답 ④
'뱃머리'는 '뱃'의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고(음절의 끝소리 규칙), 'ㄷ'이 뒤의 'ㅁ'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뀌므로(비음화), [밴머리]로 발음된다.
① '숲속'은 [숩속] → [숩쏙]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속물'은 [송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만 나타난다.
③ '담고'는 [담 : 꼬]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만 나타난다.
⑤ '웃어른'은 [우더른]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나타난다.

9. 정답 ①
㉠ 민락역[밀랑녁]: '민'의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유음화), '역' 앞에 'ㄴ' 첨가, 'ㄱ'이 'ㄴ'의 영향으로 'ㅇ'으로 교체(비음화)되어 총 3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설익다[설릭따]: '익' 앞에 'ㄴ' 첨가,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유음화), 'ㄷ'이 'ㄱ'의 영향으로 'ㄸ'으로 교체(된소리되기)되어 총 3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3회 변동이 맞다.
② ㉡ 몫몫이[몽목씨]: 자음군 단순화(탈락), 비음화(교체),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므로 3회 변동이다. 훑거나[훌꺼나]: 자음군 단순화(탈락),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므로 2회 변동이다. 변동 횟수가 다르다.
③ ㉢ 낱낱이[난나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비음화(교체),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나므로 3회 변동이다. 햇볕이[핸뼈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나므로 2회 변동이다. 변동 횟수가 다르다.
④ ㉣ 숱하다[수타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므로 2회 변동이다. 닫히다[다치다]: 거센소리되기(축약),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나므로 2회 변동이다. 변동 횟수와 일어난 음운 변동의 유형이 다르다.
⑤ ㉤ 밤낮없이[밤나덥씨]: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비음화(교체), 연음,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므로 3회 변동이다. 저녁연기[저녕년기]: 'ㄴ' 첨가, 비음화(교체)가 일어나므로 2회 변동이다. 변동 횟수가 다르다.

10. 정답 ③
㉢ 답답하게[답따파게]는 된소리되기([답땁하게])와 거센소리되기([답따파게])가 일어난다. 여기에는 자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없다.
① ㉠ 남짓한[남지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ㅅ→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ㄷ)과 거센소리되기(ㄷ+ㅎ→ㅌ)가 일어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 ㉡ 갇힌[가친]은 'ㄷ'과 'ㅎ'이 합쳐져 'ㅊ'이 되는 축약과(음운 개수 변화), 'ㄷ'이 'ㅣ' 앞에서 'ㅈ' 계열로 바뀌는 구개음화(조음 위치 변화)의 성격을 모두 가진 거센소리되기 현상이므로 적절하다.
④ ㉣ 않으십니까[아느심니까]는 자음군 단순화(탈락)로 음운 개수가 줄고(ㄶ→ㄴ), 비음화(ㅂ→ㅁ)로 조음 방법이 바뀐다.
⑤ ㉤ 넉넉하게[넝너카게]는 비음화(ㄱ→ㅇ)와 거센소리되기(ㄱ+ㅎ→ㅋ)가 일어나는데, 비음화는 인접한 자음 'ㄱ'과 'ㄴ'의 조음 방법이 비음으로 같아지는 현상이다.

11. 정답 ⑤
A(음절 구조가 바뀐 음절이 있는 말): ㉢맏형[마텽], ㉣솜이불[솜니불], ㉤끓으니[끄르니]는 음절 구조가 변한다. B(음절 구조가 바뀐 음절이 없는 말): ㉠웃다[운따], ㉡잡목[잠목], ㉥을숙도[을쑥또]는 음절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
① ㉠, ㉡은 음절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② ㉠은 음절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③ ㉠, ㉢, ㉥의 분류가 잘못되었다.
④ ㉡은 음절 구조가 바뀌지 않고, ㉣은 바뀐다.

12. 정답 ①
갑: '낱낱이'[난나치]는 '낱(ㅌ) → 낟'(교체), '낟이 → 나치'(교체, 구개음화), '낟 → 난'(교체, 비음화)의 과정에서 총 3번의 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 두 번 진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을: '읽히고'[일키고]는 'ㄱ+ㅎ→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 ㉣)가 한 번 일어난다.
③ 병: 없다'[업따]는 겹받침 'ㅄ' 중 'ㅅ'이 없어지는 자음군 단순화(탈락, ㉡)가 한 번 일어나고, 'ㄷ'이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 ㉠)가 한 번 일어난다.
④ 정: '덧입다'[던닙따]는 'ㄴ' 첨가(㉢)가 한 번 일어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ㅅ→ㄷ), 비음화(ㄷ→ㄴ), 된소리되기(ㄷ→ㄸ)로 총 3번의 교체(㉠)가 일어난다.
⑤ 무: '부엌일'[부엉닐]은 'ㄴ' 첨가(㉢)가 한 번 일어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ㅋ→ㄱ), 비음화(ㄱ→ㅇ)로 총 2번의 교체(㉠)가 일어난다.

13. 정답 ③
㉠ 읊는[음는], ㉡ 첫사랑[천싸랑], ㉢ 긁고[글꼬] 모두 받침 'ㄾ', 'ㅅ', 'ㄺ'이 각각 대표음 'ㅂ', 'ㄷ', 'ㄱ'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이는 모두 받침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① ㉡은 '첫(어근)+사랑(어근)'으로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며, 용언의 활용이 아니다.
② ㉠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은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된소리되기는 ㉡, ㉢에만 일어난다.
④ 자음 동화(비음화, 유음화)는 ㉠의 비음화(ㅂ→ㅁ)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⑤ 겹받침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는 ㉠과 ㉢에서만 나타난다.

14. 정답 ⑤
㉤ '닳다'의 어간 '닳-'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가 결합하면 [다라]로 발음된다. 이때 받침 'ㄾ' 중 'ㅎ'이 탈락하고 'ㄹ'이 연음되는데, 이 'ㅎ' 탈락 현상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① ㉠ '계시-'+-어 → '계셔'[계:셔]는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바뀌는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며, 이는 표기에 반영된다.
② ㉡ '잠그-'+-아 → '잠가'[잠가]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한 것이며, 이는 표기에 반영된다.
③ ㉢ '갈다'의 어간 '갈-'+-니 → '가니'[가:니]는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ㄹ'이 탈락한 것이며, 이는 표기에 반영된다.
④ ㉣ '타다'의 어간 '타-'+-아 → '타'[타]는 동일한 모음 'ㅏ'가 연속될 때 하나가 탈락한 것이며, 이는 표기에 반영된다.

15. 정답 ①
㉠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이다. '곱하기'[고파기]는 'ㅂ+ㅎ→ㅍ'의 축약이므로 ㉠에 해당한다. ㉡은 음운 개수 변화가 없으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면서 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꽃망울'[꼳망울]은 'ㅊ→ㄷ'(교체), 'ㄷ→ㄴ'(비음화, 동화)가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② ㉡의 예시 '닭장'[닥짱]은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나므로 음운 개수에 변화가 있어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의 예시 '쌓이다'[싸이다]는 'ㅎ'탈락이 일어나므로 축약이 아닌 탈락에 해당한다.

④ ㉠의 예시 '피어서'[펴서]는 반모음화(교체)로 음운 개수 변화가 없어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의 예시 '보아라'[봐라]는 반모음화(교체)로 음운 개수 변화가 없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단 배포 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